

“갯벌 즐기면서 배워요”

고창군, 생태교육 강화... 어린이집·초중고생·실버교육까지 갯벌 주제 인형극·게임·현장체험 등 연령별 프로그램 다양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일부는 랍사르습지로 등록된 전북 고창군이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창군 랍사르갯벌센터와 생태지평연구소, 해양환경교육단체인 '바다를 봄'은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이며 랍사르습지로 등록된 고창 갯벌을 쉽게 재미있게 배우기 위한 해양환경교육을 벌인다.

'고창 해양환경교육 바다를 봄'이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2017년 해양환경교육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갯벌 지형과 지질, 갯벌 복원, 바다새, 갯지렁이 등 갯벌을 주제

로 인형극, 시청각 교육, 게임, 현장체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생태교육을 벌인다.

교육 대상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프로그램,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실버 프로그램 등 연령별로 구분돼 있다.

고창군은 또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미래에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마다 4월부터 11월까지 군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생태학습을 벌이고 있다.

생태학습은 올해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모두 14개교가 참여한다.

교육은 하전갯벌·운곡랍사르습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5개 핵심지역을 차례로 탐방하며 체험학습 위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고창군 관계자는 "생태교육이 생물권보전지역과 랍사르습지에 대한 주민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자부심과 긍지를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네스코는 국제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육상과 연안 생태계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데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2013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국가 차원의 습지 보호와 보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랍사르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운곡습지와 고창갯벌이 랍사르습지로 등록돼 있다.

/고창=박금석기자 ghs@kwangju.co.kr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한마음축제 개최

내일 전북한국가스공사 운동장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축제인 '2017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한마음축제'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군산시 대야면 소재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군산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이연화)가 주최하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박영국)와 공동주관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학부모,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1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한마음 축제는 군산시 전체 5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거리를 준비

했다.

최성근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아동복지시설로 아이들이 가정과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쉼터"라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방과 후 아동들이 바르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역아동센터 50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48명의 전문분야 아동복지교사를 센터에 파견해 1300여명의 아동에게 생활지도는 물론 기초영어, 독서지도, 음악, 미술, 체육활동, 야간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장류축제 '치맥파티'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정

주제·포스터도 발표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올해 장류축제의 대표 프로그램과 주제, 포스터를 선정해 발표했다.

대표 프로그램은 '별빛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창의 밤'으로 정해졌다. 순창 고추장을 사용한 치킨으로 치맥파티를 하며 다양한 야간 공연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관객들이 1박 2일간 순창에서 머물며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해 밤새 흥을 이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주제는 '순창의 전통장(醬), 세계인의 일품 소스(sauce)'가 뽑혔다.

전통장을 소스화해 세계 소스시장에 진출하려는 장류축제의 성장 전략에 부합하고 축제의 외연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포스터는 장류의 발효를 상징화한 작품이 선정됐다. 공모전에는 모두 462건의 아이디어와 작품이 출품됐다.

순창 장류축제는 전통 장류와 발효 음식의 진수를 맛보는 행사로 올해는 10월 20일부터 사흘간 순창전통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순창=정영근기자 jyg@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매주 토요일 개항장터 구경 오세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거리서

내일부터 10월 21까지 운영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차 없는 거리'에서 개항장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박물관 개항장터는 원도심 경계를 활성화하고 근대 시간여행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군산 유일의 상설 시민 장터다.

개항장터는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재활용 가능 물건들과 시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아나바다 프리마켓' 형태로 운영되며, 참여는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 개항장터에서는 박물관 거리문화 공연과 연계한 '타악 공화국 흥소리'의 사물놀이 공연 등도 펼쳐진다. 개항장터는 오는 10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지막 주 제외) 운영된다.

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해 관람객 100만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지난 4월까지 25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군산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앞 '차 없는 거리'에서 오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지막 주 제외)개항장터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장터 모습.

환경부 등 방문 적극 반영 건의

박우정 고창군수가 군정발전을 위한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지난 11일 각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2018년 국가예산확보대상 사업 중 상수도분야 4개 사업에 686억원의 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관련 실·과를 방문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박 군수는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각 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고 예산 반영에 심혈을 기울인 끝에 상하변 동촌(99억)과 부안면 고간

(50억)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하수관거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도 냈다.

박 군수는 그러나 상수도 누수문제 해결을 위한 상수도현대화사업(458억) 등은 국가재원 문제와 시·군간 치열한 경쟁으로 환경부 반영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연일 관계부처를 찾아 누수문제에 따른 재정손실과 물 손실에 대한 고창군의 현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박우정 고창군수는 민선 6기 취임 초기부터 현안사업과 신규 및 계속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예산확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봄 여행 문화예술의 향기 함께 즐겨요

내일 지리산생태탐방원수원

국립공원 3050기념 음악회 개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와 지리산생태탐방원수원은 "13일 오후 7시 지리산생태탐방원수원 대강당에서 2017년 국립공원3050 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50주년 지정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지리산 지역문화예술 한마당인 '국립공원 3050기념 음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국립공원 3050기념 음악회'는 13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펼쳐질 예정이며, 지리산을 테마로 한 시낭송과 가요, 가야금 명창, 해금 독주, 춤 퍼포먼스, 판소

리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문화예술 한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행사장 외부에는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해 자연과 상생하는 삶의 즐거움과 여유를 공유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소통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용환 지리산생태탐방원수원장은 "국립공원 3050기념 음악회를 통해 국립공원 50주년 지정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 탐방객과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문화적 공간대 형성도 기대된다"면서 "지리산국립공원의 다채로운 정서와 감성을 담아낸 이번 공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힐링의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남도공인중개사

<혁신적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3천만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2억9천만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9천만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중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마트 현대아파트매 매 19억9천만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 생산관리 매 25억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근처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집중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합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용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사무소 앞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편식·전원주택지

- 함평군 손불면 원천저수지와 바다인근 대지 1197㎡ 4300만원
- 남평읍 우산리 대지 774㎡ 광주에서 15분거리 6700만원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 32454㎡ 펜션과 농장적합 5억
-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바닷가 전망좋은 땅 6337㎡ 3억9천
-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13662㎡ 농장·전원생활용 1억천
- 보성군 회천면 전망좋은 바닷가 5360㎡ 매도 4억9000
-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임야 40만㎡ 편식·전원주택·별장 등 다용도 개발 적합 매도 12억(운조루 유류전시관마을)
- 장성군 북이면 면사무소에서 3km, 입암산일 전과산 78197㎡ 한옥마을, 전원주택지 적합 경관·교통중용 11억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재개발가능지 대지 195㎡ 주택 63㎡ 8800만원
- 장성군 남면 소재지 그린벨트 갭나무빌 10958㎡ 투자에 양호 6억8천
- 독립섬 56233㎡ 신안군 암태면 새천년고도 인근 3억5천
- 소초동 자연녹지 1530㎡ 투자에 양호합 10억천
- 유동 상업지 331㎡ 상가·일룸 등 적합 매도 4억3천
- 월산동 보라아파트부근 상가1층 65㎡ 다용도임 6300만원
- 함평군 해보면소재지 주거지역 전 4329㎡ 매도 2억천
- 대인동 상업지 787㎡ 주상복합건물 적합 14억3천
- 서구 미륵동 2251㎡ 다용도 건물 신축 적합 21억
- 담양군 수북면소재지 7971㎡ 소형아파트 적합 15억2천
- 화순읍 북송아·매실·감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5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장용 1억천

상가건물

- 월산4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식당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서구 교통요지 대지 1657㎡ 건평 7768㎡ 요양병원용 적합 49억
- 월산동 대지 126㎡ 건물 297㎡ 은행 4억 매도 6억6천
- 월산동 농성초건너편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 월산동 운전각부근 대지 160㎡ 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내에 있는 섬 (팻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 분할 / 지분매매 가능
- 타 부동산과 교환가능
- 매매 - 7억 (평당5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장성군 공고 제2017-301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장성군수

1. 분묘위치: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산 626-5번지
2. 분묘기수: 25기
3. 개장사유: 상무평화공원 조성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장성군 추모공원(☎ 061-393-0985) (전라남도 삼계면 영장로 900남골당)
6.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5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장성군수(문화관광과장)
9. 신 고 처: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061-390-7251)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585 (☎ 061-390-6971))
10. 신고방법: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 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 증명서류(제적등본, 호적, 족보,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 타: 추가 분묘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함.